

2019
Vol. 23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뉴스레터

음악



SNU MU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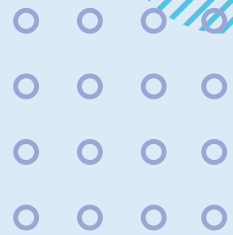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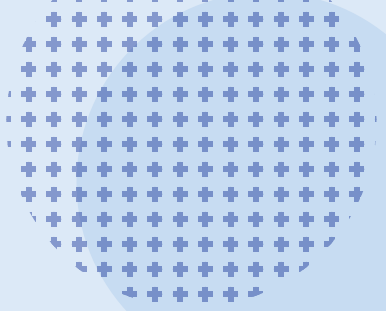
울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뉴스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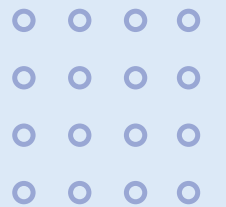
2019

CONTENTS

- PART1 음악대학 주요행사 및 소식 05
- PART2 교수 및 학생 인터뷰 19
 - 퇴임교수 인터뷰 임헌정 교수님 20
 - 신임교수 인터뷰 김영선 교수님 24
 - 신임교수 인터뷰 린보페이 교수님 29
 - 학생인터뷰 키지아나 음대 교류학생 33
- 축하합니다 36
- 감사합니다 37



음악대학 주요행사 및 소식



영국 QS 세계대학평가 서울대학교 2019년 공연예술 분야 40위 선정

QS(Quacquarelli Symonds)사에서 발표하는 세계대학평가에서 서울대학교가 2019년 공연예술(Performing Arts) 분야 세계 40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QS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으로 1994년부터 매년 세계 대학을 평가하여 새로운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서울대학교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대학으로서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어가길 기대한다.

클래식과 국악, 국내와 해외, 교수와 학생 모두가 하나되는 음악적 허브, SNU 국제음악캠프

2019년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에 걸쳐 각종 콘서트와 마스터클래스, 렉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가득 채워진 "2019 SNU국제음악캠프"가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는 교내 교수진과 기악, 국악, 작곡 전공의 다양한 학생들뿐 아니라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초청한 교수와 학생들까지 모두 한 곳에 모여 서로 음악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었던 굉장히 뜻 깊은 행사였다.

SNU 국제음악캠프의 첫 순서는 19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서울대학교 린보페이(PerMagnus Lindbög) 교수의 렉처가 장식하였다. 린보페이 교수는 "Acoustic Electronic"에 관한 열정적인 렉처를 진행하였다. 비교적 생소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이어서 20일에서 23일에는 캠프의 일환으로 "SNU 국제실내악축제"가 개최되었다. 20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웰컴 콘서트로 시작하여 22일 음악대학 55동 타악기실에서 열린 런치 패컬티 콘서트, 마지막으로 23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파이널 콘서트까지 이어지는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나볼 수 있었다. 국내와 해외, 교수와 학생이 모두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국제음악캠프만을 통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20일에서 22일에는 역시 캠프의 일환으로 개최된 "SNU 국제 현대음악 컨퍼런스 &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해외 대학에서 초청한 교수진의 렉처, 마스터클래스는 물론 초청 교수와 학생들의 작품으로 이루어진 콘서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Joyce Beetuan Koh 교수는 21일 서울대학교 55동 시청각실에서 <Musicalising Beckett at the nexus of music, theatre and philosophy>라는 주제로 학생들을 만났으며, 22일에는 Clarence Mak 교수가 <Glocalization: An Inspiration for Music Creativity Today and Study>라는 타이틀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22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는 해외 대학 초청 교수와 학생의 작품 뿐 아니라 공모를 통해 엄선된 서울대학교 작곡과 작곡전공 학생들의 작품까지 평소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레퍼토리들로 이루어진 "New Music Concert"가 열렸다.

이외에도 20일 서울대학교 74동 오디토리움에서는 김진이 통기협 대표의 공연기획에 관한 렉처가 있었으며 21일에는 국악과 학생들의 발표회가 있었다. 이처럼 "SNU 국제음악캠프"는 오직 서울대학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유익하고 특별한 프로그램들로 가득 찬 풍성한 축제의 장으로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앞으로도 "SNU 국제음악캠프"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대표하는 국제행사이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교차하고 세계 각지의 음악인들이 모여드는 음악적 허브로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젊음의 열정으로 가득 채운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2018 대학오케스트라축제 개막연주



서울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2018 예술의전당 대학오케스트라축제의 화려한 막을 열었다. 이번으로 5회째를 맞은 대학오케스트라축제는 국내를 대표하는 음악대학 오케스트라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로, 올해에는 모두 7개의 대학 오케스트라가 참가하였다. 그중 개막연주를 맡은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8년 10월 30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임헌정 교수의 지휘로 젊음의 열정이 느껴지는 강렬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공연에서는 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전상직 교수의 <관현악을 위한 '믿음'>(Credo for Orchestra)과 베토벤(L. v. Beethoven)의 <교향곡 9번 '합창'>(Symphony No. 9 Op. 125 in d minor)이 연주되었다.

이 중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은 임헌정 교수의 은퇴와 함께 특별 기획된 《9th Symphony Series》의 일환이기도 하다. 말러, 베토벤, 브루크너로 이어지는 《9th Symphony Series》를 통해 대학 오케스트라이지만 거의 전문 오케스트라 못지않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성장 또한 지켜볼 수 있었다. 이날 공연에는 소프라노 박미혜 교수, 베이스 전승현 교수와 테너 정의근, 메조소프라노 양송미가 솔리스트로서 함께 무대에 올랐다. 환희와 인류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은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준 높은 연주와 대규모합창단이 더해져 더 진한 감동을 선사하였다. 서울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 오케스트라로서 오랜 시간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를 '음악' 그 자체로 증명한 무대였다.

캠퍼스 곳곳을 아름답게 수놓은 2018 서울대학교 예술주간 Art Space @ SNU

캠퍼스 곳곳에서 음악, 미술, 무용, 문학, 연극, 패션쇼 등 다채로운 예술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서울대학교 예술주간 Art Space @ SNU"가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본 행사는 서울대 구성원이 가진 풍부한 예술적 역량을 즐겁게 공유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올해에는 9월 10일에서 14일까지 총 5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음악대학에서는 이번 2018 예술주간을 맞아 총 14개의 공연을 선보였으며, 덕분에 시대와 장소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즐길 수 있었다. 다만, 태국, 오스트리아 등 해외교류학생들과 함께 꾸미는 공연들도 펼쳐져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에게 더욱 더 색다르고 의미 깊은 경험이 되었다.

가장 먼저 9월 10일 오후 12시 연건캠퍼스 융합관 야외무대에서는 런치 콘서트 "사물놀이와 태평소"가 열렸다. 국악과 학생들이 연주하는 사물놀이와 태평소의 선율이 연건캠퍼스에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같은 날 오후 1시 관악캠퍼스 예술복합동 2층 발코니에서는 하프 독주와 실내악으로 꾸미는 런치콘서트 "하프와 함께하는 실내악 연주회"가 진행되었다.

이어 9월 11일에는 오후 12시 문화관 야외무대에서 관악양상블 "사운드 오브 윈즈", 오후 12시 30분 예술복합동 2층 발코니에서 전통 및 신작 "판소리 연주회"가 열렸다. 오후 4시 문화관 중강당에서 진행된 화요일음악회는 예술주간 특별 기획으로 꾸며졌다. 또한 오후 7시 920동 사랑채에서는 "관악 학생생활관 작은음악회"라는 타이틀로 해외교류학생들과 음악대학 학생들이 참여하는 실내악 연주회가 열렸다.

12일의 첫 공연은 오후 12시 아시아연구소 감골식당 앞 야외무대에서 열린 "오리엔트 익스프레스"가 장식하였다. 이는 아시아연구소 연계 프로그램으로, 현대음악제작실습 수업을 통해 제작한 작품들로 꾸며졌다. 또 오후 12시 30분 문화관 야외무대에서는 "SNU 실내악 연주회"가 열렸다.

13일에는 오후 12시 문화관 야외무대에서 한국의 궁중음악과 민속악을 선보인 "전통음악연주회", 오후 12시 30분 중앙도서관 관정관 관정마루에서 런치콘서트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이 열렸다. 오후 1시 예술복합동 2층 발코니에서는 해외교류학생들과 음악대학 학생들이 함께하는 "Borderless Concert"가 열려 학생들이 음악으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후 7시 연건캠퍼스 융합관에서도 역시 해외교류학생들과 음악대학 학생들의 합동 연주회인 "연건캠퍼스 카페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오후 12시 문화관 야외무대에서 "한국-태국 60주년 공연"이 열렸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꾸며진 이번 무대에는 한국과 태국의 음악, 무용전공 학생들이 올라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같은 시각 연건캠퍼스 융합관 야외무대에서는 "SNU 실내악 연주회2"가 열려 예술주간 마지막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처럼 2018 예술주간 Art Space@SNU는 여러 예술프로그램들을 통해 새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의 생활 곳곳으로 스며들어가 캠퍼스에 더욱 생기를 불어넣어주었으며, 바쁜 일상과 학업에 지친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로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화요음악회

화요음악회는 서울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관악구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전석 초대 음악회이다. 2018년 하반기에는 9월 11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11월 6일까지 총 5번의 음악회가 진행되었으며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각 공연은 화요일 4시 서울대학교 문화관(73동) 중강당에서 열렸다.

9월 11일 열린 하반기 첫 화요음악회는 예술주간 특별 연주회로 진행되었다. 이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서울대학교 예술주간의 일환으로 매 학기 정기적으로 공연되던 화요음악회를 예술주관을 통해 특별히 만나볼 수 있는 기회였다. 베이스 전승현 교수와 피아니스트 배지영과 함께 소프라노 한예원, 소프라노 김이재, 소프라노 조연재, 테너 도지훈, 테너 오세원 등 성악과 재학생들이 무대에 올랐다. 슈베르트(F. Schubert), 슈만(R. Schumann), 스트라우스(R. Strauss), 슈만(C. Schumann), 브람스(J. Brahms)의 독일 가곡이 연주되었다.



두 번째 공연은 10월 16일에 열렸다. 음악대학 기악과 윤혜리 교수와 SNU 목관 앙상블이 함께 무대를 꾸몄다. 브와로르티에(J. B. de Boismortier)의 <Première Concerto pour 5 flûtes(11 flutes)>, 모차르트(W. A. Mozart)의 <Divertimento K. 138>와 <Overture from Le nozze di Figaro, K. 492 for Four Flutes>, 아널드(M. Arnold)의 <Three shanties for woodwind quintet>, 베크만(H. Beckmann)의 <Levada for Four Flutes>, 그리고 구노(C. F. Gounod)의 <Petite symphonie pour vents>를 만나볼 수 있었다.



10월 23일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재학생 8명이 꾸미는 실내악과 가야금 연주회가 펼쳐졌다. 기타 안용현, 바이올린 홍지수, 바이올린 고동희, 비올라 신경식으로 구성된 기악과의 실내악팀이 바흐(J. S. Bach), 망고레(A. B. Mangore), 뭉포우(F. Mompou), 헨델-할보르센(G. Handel-J. Halvorsen)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들려주었다. 또 4명의 가야금 연주자 김보경, 유하늘, 김정민, 김혜원은 <4대의 가야금을 위한 '호호굿'>과 <미로(labyrinth)>를 연주하였다.

10월 30일에는 “가을에 만나는 브람스”라는 타이틀로 클라리네티스트 김하나와 피아니스트 장미경의 듀오 연주회가 열렸다. 이들은 브람스(J. Brahms)의 <Sonata for Clarinet and Piano in E flat Major, Op. 120 No. 2>와 클라라 슈만(C. Schumann)의 <Three Romances Op. 22>, 브람스의 <Sonata for Clarinet and Piano in F minor, Op. 120 No. 1>를 선보였다.

11월 6일 열린 마지막 화요음악회는 국악과 양경숙, 김경아 교수 연주회로 꾸며졌으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연주단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김영재의 <계명곡>을 시작으로 조원행의 <세 대의 대금을 위한 대화>까지 총 7곡의 감미로운 선율로 2018년 화요음악회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국악정기연주회

2018년 10월 25일 국립국악과 예약당에서 국악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원일 작곡, 이승훈 지휘의 <천장>을 시작으로 도널드 워드 워맥(Donal Reid Wormack)의 <하늘의 중심을 향한 나선>(Spiral Toward Center of the Sky), 김대성의 <대금협주곡1번 '풀꽃'>, 이태원의 <룡강기나리>, 위촉 초연인 송지섭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풍경'>, 손성국의 <멜리카르손의 상상극장>, 이귀숙의 <산조아쟁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 등 다채로운 연주들이 진행되었다. 국악과 학생들은 그간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한 경험을 선사하였다.



조아키노 롯시니 서거 150주년 기념 <롯시니를 찾아서>

2018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대학교 오페라 연구소와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이 주최하는 조아키노 롯시니(g. Rossini, 1792~1868) 서거 150주년 기념 '롯시니를 찾아서'가 개최되었다.

특히 안나 보니타티부스(Anna Bonitatibus)를 초청하여 10, 11, 12일 3차례에 걸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4일 7시에는 안나 보니타티부스의 리사이틀이 열렸다. 또 12일 7시에는 마스터클래스 학생 음악회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행사가 진행되는 5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었으며 이탈리아 오페라의 대가 롯시니를 기념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박민중 실기지도실 개관식



2018년 9월 13일 "박민중 실기지도실" 개관식이 열렸다. 음악대학 교수 및 학장을 역임하신 고(故) 박민중 명예교수님의 제자들이 음악대학에 1억원의 장학금을 출연하셨고 그 뜻과 업적을 기리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및 연습 장소를 제공하고자 고인의 이름을 딴 박민중 실기지도실을 조성하였다.

야외 힐링 음악회

2018년 10월 2일 서울대학교 버들골 풍산마당에서 음악대학 기획홍보실과 관악구 보건지소가 협력한 야외 힐링 음악회가 진행되었다. 관악구 보건지소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음악대학 <연주사회공헌> 수업 수강생들이 모여 국악, 성악, 기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인권영화제 공연

2018년 10월 4일에서 5일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앞마당에서 인권영화제 공연이 열렸다. 영화 '레미제라블'의 <Les Miserables Medley>, '인생은 아름다워'의 <La Vita E Bella>, '모아나'의 <How Far I'll Go>, '신들려 리스트'의 <Schindler's List>, '포레스트 검프'의 <Forrest Gump>, '주토피아'의 <Try Everything>, 마지막으로 '기쿠지로의 여름'의 <Summer>까지 인권주간에 맞춰 선별한 영화의 OST가 울려 퍼졌다. 음악대학 학생들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은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색다르고 즐거운 휴식시간을 선물하였다.



Studio2021 미니콘서트 <Trio Catch>

2018년 10월 5일 저녁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STUDIO2021 미니콘서트 <Trio Catch>가 열렸다. 고전 뿐 아니라 동시대 음악의 가치와 그 해석에 주목하는 Trio Catch는 앞선 10월 4일부터 Reading Session과 Coaching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뜻 깊은 만남을 가졌으며 그 마지막을 화려한 콘서트로 장식하였다.

Ensemble2021 Concert <Sound of Universe- Eternal Time>

2018년 10월 8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Ensemble2021 Concert <Sound of Universe- Eternal Time>이 열렸다. 존 던스터블(John Dunstable)의 <아름다운 당신>(Quam pulchra es)과 티에리 페구(Thierry Pécou)의 <가상적인 의식을 위하여>(Pour un rituel imaginaire), 알프레드 슈니트케(Alfred Schnittke)의 <현악사중주 제3번>(String Quartet No.3), 올리비에 메시앙(Olivier Messiaen)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Quatuor pour la fin du Temps), 그리고 죄르지 리게티(György Ligeti)의 <영원의 빛>(Lux Aeterma for 16 voices)이 연주되었다.

Cordula Hacke 초청 마스터클래스 & 콘서트

2018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플루티스트이자 피아니스트, 음악코치 등으로 다방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Cordula Hacke의 마스터클래스 및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9일에는 마스터클래스(Chamber, Flute), 10일에는 마스터클래스(Vocal Diction)와 콘서트(Flute Class), 11일에는 마스터클래스(Chamber, Weekly Class)와 콘서트(Workshop)가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좋은 배움의 장이 되었다.

Ensemble Academy Concert I <Time Study>

2018년 10월 15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Ensemble Academy Concert I <Time Study>가 진행되었다. 올리비아 메시앙(Olivier Messiaen)의 <주제와 변주>(Thème et variations for violin and piano),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Quatuor pour la fin du Temps), 프랑코 벤투리니(Franco Venturini)의 <글리산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연>(Natura viva con glissandi), 백성태의 <파르티타>(Partita for 2 flutes and piano), 토시오 호소카와(Toshio Hosokawa)의 <종적인 시간의 연구>(Vertical Time Study I, for clarinet, cello and piano), 강성윤의 묘안석(Catseye for 2 pianos), 그리고 베른트 알로이스 치머만(Bernd Alois Zimmermann)의 <독백>(Monologue for 2 pianos)를 만나볼 수 있었다.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

2018년 10월 23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는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1, 2학년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로 매학기 2회의 정기연주회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그 중 이번 학기 첫 번째 정기연주회인 지난 23일에는 김준영의 지휘로 멘델스존(F. Mendelssohn)의 <Symphony No. 3 in a minor, Op. 56 'Scottish'>를 김근한의 지휘로 베토벤(L. v. Beethoven)의 <Symphony No. 7 A Major, Op. 92>를 만나볼 수 있었다.

중국 중앙음악원 루안족 실내악단 렉처콘서트



2018년 11월 2일 11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관현악실(54동317호)에서 중국 중앙음악원 루안족 실내악단 렉처콘서트가 열렸다.

중국 중앙음악원 루안족 실내악단은 2005년 6월 유명 연주자이자 중앙음악대학 교수인 서양(徐阳)교수가 설립하였으며 샤샤탕(夏小汤)이 상임지휘자로 있다. 중앙음악원의 우수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중국의 민족음악 레퍼토리 개발과 연구, 국내외 작곡가들과의 협업 등 민족음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중국문화부 "문화예술학원컵" 민족기악그룹 동상, 2006년 문화부 전국민족실내악작품 "문화상" 2등상, 2007년 "제1회 CCTV민족기악TV대상" 은상 등 많은 경연대회에서 수상하며 그 실력을 입증하였다. 이날 공연에서는 塞里木之歌(The Sayram Lake) 등의 작품을 연주하였다.

서울대학교 선한 인재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



2018년 11월 13일 경기도 용인 삼성노블카운티에서는 서울대학교 선한 인재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가 열렸다. 1부는 <천년만세>, 우조 시조 <월정명>, <춘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등 정겨운 국악 작품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2부는 <아라베스크 No. 2>, <알함브라 궁전>, <반허공>, <넬라 판타지아>, <뱃노래>, <11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 클래식 작품 위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곡으로는 <아름다운 나라>를 들을 수 있었으며, 선선한 가을 날씨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선율에 흠뻑 젖어 들 수 있는 공연이었다.

피아노과 정기연주회-드뷔시 서거 100주년 음악회

2018년 11월 19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피아노과 정기연주회 "드뷔시 서거 100주년 음악회"가 열렸다. <Images Book1>과 <Preludes Book1>, <Images Book2>, <Preludes Book2>에 수록된 총 30곡이 연주되었다. 10명의 피아니스트가 무대에 올랐으며 각자 다른 매력으로 드뷔시의 음악을 아름답게 풀어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스트링 앙상블

2018년 11월 26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스트링 앙상블 공연이 진행되었다. 벤자민 브리튼(Benjamin Britten)의 <Variations on a Theme of Frank Bridge for Strings>, 헨델(George Frideric Handel)의 <Harp Concerto Op. 4, No. 6>, 막시모 푸홀(Maximo Diego Pujol)의 <Guitar Suite Buenos Aires>, 피아졸라(Astor Piazzolla)의 <las cuatro estaciones portena>, 그리고 엘가(Edward Elgar)의 <Introduction and Allegro for Strings op.47>가 이어지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국악과 협연의 밤

2018년 11월 27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국악과 협연의 밤 연주회가 열렸다. 1부에는 이승환의 지휘로 해금협주곡 <방아타령>, 아쟁협주곡 <세한, 그 푸르름>, 해금협주곡 <혼불V-시김>이 연주되었으며, 2부에는 심상욱의 지휘로 <활의노래>, 가야금협주곡 <가야금 4중주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호호굿>이 연주되었다.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18년 11월 28일 저녁 7시 30분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서울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이날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임헌정의 지휘로 브루크너(A. Bruckner)의 <교향곡 제9번>(Symphony No. 9 in d minor WAB 109)과 말러(G. Mahler)의 <교향곡 제 3번의 6악장>(Symphony No. 3 in d minor VI. Langsam-Ruhevoll-Empfunden)을 선보였다.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2

2018년 11월 29일 저녁 7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2018년도 하반기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매학기 2번, 매년 4번의 정기연주회를 가지고 있다. 김광현의 지휘 하에 베르디(G. Verdi)의 서곡 <La forza del destino>와 모차르트(W. A. Mozart)의 <교향곡 제35번>(Symphony No. 35 in D Major K. 385 'Haffner'), 차이코프스키(P. I. Tchaikovsky)의 <교향곡 제4번>(Symphony No. 4 in f minor Op. 36)을 만나볼 수 있었다.

New Music Project

2018년 12월 13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에서 "New Music Project-Nature & Architecture"이 공연되었다. 본 연주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기악과, 작곡과의 콜라보레이션 수업인 뉴뮤직프로덕션랩의 최종 발표 공연으로 모두 6개의 팀이 힘을 합쳐 만들고 직접 연주하는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첫 곡으로는 예리정의 <The Sound of Origin>이 연주되었다. 이어 Project NA의 <구조 Structure>, Plucked Strings의 <靈>, 천리일도의 <Breeze>, Virtual 3의 <통곡의 미루나무>, 마지막으로 Natural의 <정취>까지 학생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퀄리티 높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제6회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



2018년 12월 13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제6회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이 열렸다. 가야금의 이유림, 해금의 선지우, 정가는 조수빈, 바이올린에는 김지현과 박가은, 비올라 나은수, 첼로 이현아가 연주자로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비익련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중 1악장>, <크리스마스 캐롤> 등 청중들에게 익숙한 레퍼토리들을 위주로 무대를 꾸몄다. 학생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벌써 6회째를 맞은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은 이번 공연에서도 역시 관객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며 적막했던 중앙도서관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100년 대합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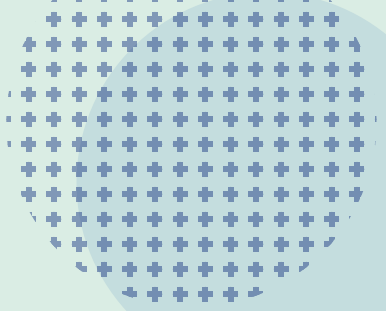


2019년은 3·1운동이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지난 1일 서울광장에서는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시간인 오후 2시 30분에 맞춰 '100년 대합창'이 울려 퍼졌다. 이 날 공연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임헌정 교수의 지휘와 함께 3·1운동의 100주년을 상징하는 숫자인 3100명의 합창단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삼일절 노래를 비롯하여 독립군가, 압록강행진곡, 광양에서, Heal the World, 젊은 그대, 아리랑, 스코틀랜드 민요인 'Auld Lang Syne' 버전 애국가 등 총 11곡이 100년 전 이곳을 채웠던 만세소리처럼 아름답게 울려 퍼지며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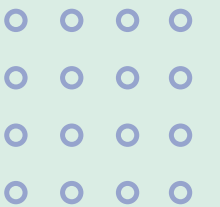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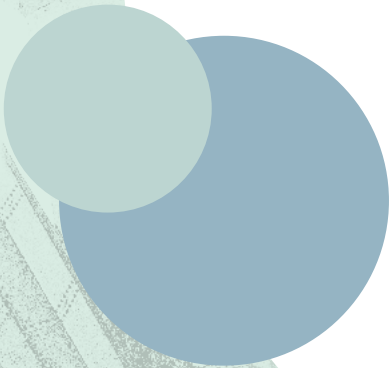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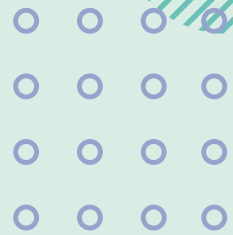


악기 기부 - 김민성 선생님 비올라 1종

악기 제작자 김민성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비올라 1종을 기증해주셨다. 김민성 선생님은 국제현악기수공전문학교인 IPIALL을 졸업하고 세계 유수의 악기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는 유명 제작자로, 금회 시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높은 품질의 악기를 기증하였다.



교수 및 학생 인터뷰



“The best thing is not to be found in the note.”

최고의 것은 음표 안에 없다.

임헌정 교수님



미국 유학 후 1985년 귀국해 그해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학교 작곡과 지휘 전공 교수로서 SNU오케스트라를 이끌어온 임헌정 교수가 그간 정든 교정을 떠난다. 제14회 동아음악콩쿠르 작곡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입증한 그는 서울대 음대 졸업 후 메네스 음악대학(Mannes College The New School for Music)과 줄리어드 대학에서 작곡과 지휘를 공부하였다. 귀국 후에는 바로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을 뿐 아니라 1989년부터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초대 상임지휘자를 지냈다. 부천필과 함께 한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 시리즈'를 통해 일명 '말러 신드롬'을 이끌며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지휘자 중 한명으로 인정받았다. 또 2014년부터 2017년에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이자 상임지휘자로 활동하였다. 이처럼 국내 클래식 음악계 발전의 산증인이자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를 수십년간 지켜봐 온 아버지 같은 존재인 임헌정 교수를 지난 2월 12일 만나 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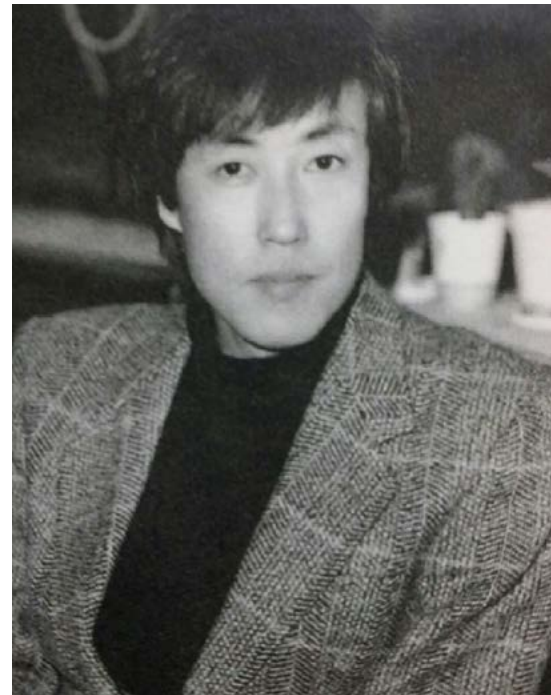
서울대학교에서의 지난 추억을 되돌아보며 미소 지으시던 임헌정 교수는 퇴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를 물어볼 줄 알았다며 호탕하게 웃으셨다. 이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셨다.

1985년부터 2018년까지 수십년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재직하신 만큼 수많은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보고, 수많은 만남과 떠나 보냄을 반복하셨을 교수님께 학생을 지도하시면서 가장 보람찼거나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지 여쭙어 보았다. 그는 너무 오래 가르쳐서 하도 많아 고르기 어렵다며 난감해 하시더니 이내 ‘음악은 마음이다’, ‘소리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학생을 가르치면서 깨달았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수업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세헤라자데라는 곡을 하는데, 물론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잘하지만, 어느 패시지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한테 마음을 다해서 선물하는 기분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랬지요. 근데 불과 1분만에 음악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불과 1분만에. 음악이란 그런 것이라는 것을 나도 가르치면서 배웠어요. 기술이 아니라서. 물론 소리는 널 줄 알아야 하니 기술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기술은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을 담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똑같은 곡이더라도 말이예요. 그래서 ‘모든 음악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보통 그걸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

가 많아요. 알면서도 기계적으로만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From inside입니다.”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반대로 혹시 지금 교직 생활을 돌이켜 보았을 때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는지 묻자, 질문이 끝나자마자 마치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 단호히 ‘없다’고 말씀하셨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이라며 고개를 저으시는 모습에서 조그마한 아쉬움과 후회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당신의 모든 것을 서울대학교를 위해 쏟아부으신 지난 날들의 열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1946년 설립 이후 약 7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그중 거의 절반은 임헌정 교수와 함께였다.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의 발전은 임헌정 교수의 지도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베토벤, 모차르트의 고전파에서부터 브루크너, 베를리오즈, 브람스, 말러, 슈트라우스, 스트라빈스키 그리고 최근의 정태봉, 전상직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작곡가들의 폭넓은 레퍼토리를 다루면서도 이를 무대에 올린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의 연주능 호평을 몰고 다닌 바 있다. 이처럼 전문 오케스트라도 버거워 하는 대곡들을 대학 오케스트라로서 성공리에 무대에 올릴 수 있었던 데는 임헌정 교수의 몫이 클 것이다. 그런 교수님께 냉정하게 현재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는 세계의 어느 즈음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계신지 여쭙었다. 그러자 곧바로 ‘대한국 최고’, ‘프로 그 이상’, ‘탑 클래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임 교수는 “물론 취약한 악기군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연주력은 세계 탑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라고 극찬하며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드러냈다.



부임하신 이후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어하셨는지 묻자 그는 “제가 교수를 한 것은 85년부터이지만 70학번이니까 70년도부터 유학 생활 빼고 대략 49년을 서울대에, 그러니까 반세기, 내 인생의 전부 다라고 봐도 되는 세월을 서울대에 몸담았습니다. 그 세월동안 이강숙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선생님의 학교와 땅을 생각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살았고, 그래서 좀 더 이것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라며 그간 교수로서 지냈던 사명감에 대해 말하였다. 또 그는 “많은 레퍼토리 중 20년전 1999년에 시작한 것이 말러 사이클인데, 그전에는 우리가 말러는 어렵다는 이유로 거의 연주하지 않았다가 이 사이클 이후 말러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종류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책임감. 우리나라 음악계를 좀 더 진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나태하게 주저 앉아있으면 대학교수의 본분이 아니잖아요.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 마지막 보루예요. 서울대학이 언제나 앞장서서 가야지 우리나라 음악계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 책임감은 늘 무겁지만 그래서 더 비교적 생소한 말러, 브루크너 같은 곡을 시도해왔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임 교수의 대답을 통해 국내 클래식계에서 가히 신드롬이라 불릴만한 말러 열풍을 이끌어 승승장구했던 성공적인 지휘자이자 대학교수의 화려한 모습 속에 가려져 있던 그의 뒷모습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다. 일련의 성공과 영광 뒤에는 그가 홀로 견디고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책임감과 치열한 고민, 고독한 싸움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임 교수는 “그리고 작곡과 출신으로서 말하자면, 음악계에서 ‘작곡’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지표는 뉴 뮤직에 대한 투자에 달려 있어요. 언제까지나 200년 전곡만 연주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화두가 우리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음악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국수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료(material), 소스(source)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작곡가가 그러한 소리를 들어보려면 인간을 통해서 듣습니다. 컴퓨터로 듣는 건 가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외국에 갈 때면 작곡과 학생들의 작품을 항상 가지고 나가고는 합니다. 이는 백병동, 정태봉 선생님 등등의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곡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덧붙었다.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대학교,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음악계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끝없는 고민과 뜨거운 열정은 사그라들 줄 모르는 듯 보였다.

임헌정 교수와 함께한 지난 음악대학의 족적을 되짚어보면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공연에서의 말러 교향곡 제 8번 연주라든지 2017년 《Brahms Complete Symphonies Series》, 최근의 말러·베토벤·브루크너로 이어지는 《9th Symphony Series》까지, 대학 오케스트라로서 쉽사리 도전하기 어렵고 기량과 열정 모두를 필요로 하는 굵직한 기획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는지 묻자 모든 공연이 전부 생생히 기억난다고 대답하셨다. “50주년 때는 말러 2번, 60주년 때는 8번, 70주년때 2번, 작년에는 베토벤 9번...”이라며 줄줄이 각 공연과 연주 곡목을 읊는 모습에서 한 공연공연마다 얼마나 공을 들여 빚어냈는지 알 수 있었다. “다 기억나요. 특히 작년 9번 시리즈는 음악사에서 손꼽힐만한 최고봉일 거예요. 어느 학교도 흉내 낼 수 없을걸요. 하지만 서울대가 바로 그런 걸 해야 되죠. 서울대가 그런 걸 하지않고 나태하면 되겠어요? 서울대학이 항상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예요. 이는 물론 국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악은 서울대학교가 곧 세계 최고 아닙니까. 우리는 그만큼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라며 학생들을 위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다음으로 조금 더 음악대학에 초점을 맞춰 교수님께서 처음 부임하셨을 때와 현재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을 묻자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아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음악에 열정을 바치는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음악가의 자세이죠. 음악가는 치열하게 살아야 해요. 불량식품을 만들면 잡아가는데 불량연주에 대한 법은 없어요. 하지만 음악은 인간의 정신이 먹는 양식이예요. 사람들은 좋은 양분이 있는 것,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정신이 먹는 것은 상해도 몰라요. 세종대왕도 ‘백성을 즐겁게 하라’고 하셨고 다른 여러 왕들도 문화와 음악을 중요시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 후에 문화에 투자했어요. 독일은 현대음악, 프랑스는 미술 쪽이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나면 ‘정신’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정신이 중요하고, 정신이 먹는 양식인 음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국립대학이라는 것이 뭘니까. 최고의 학생과 선생들이 다함께 예술가로의 길을 가기 위해 이 곳 서울대학교에 모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술가는 각고의 훈련과 연습 없이는 될 수 없는 존재이고요. 좋은 음악은 인간의 병도 고치는데, 예전에 어떤 약학대학 학생이 얘기하길 음악의 ‘악’ 자가 오락의 ‘락’ 자도 되지만 거기에 점 하나 없으면 ‘악’ 자가 된대요. 둘 다 사람을 고친다는 거죠. 소리로 고치는 건 음악, 풀로 고치는 건 약이라는 것입니다. 음악은 그만큼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양분이라는 인식을 다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음악대학이 좋은 연주, 좋은 창작품을 해야지 허접스럽게 성의없이 내놓아서 안되겠죠. 그런 정신을 서울음대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덧붙었다. 이처럼 임 교수는 긴 세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함께 해온 만큼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음악대학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마지막으로 퇴임 후에 계획하시고 있는 일이 있는지 여쭙자 “나를 원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가서 활동할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할 것이다” 라고 답했다. “일반인들은 보통 나를 ‘말러’로 기억할거예요. 그래서 말러가 한 얘기를 하나 함으로써 정리하겠습니다. ‘최고의 것은 음표 안에 없다.’ (The best thing is not to be found in the note). 즉, 악보의 소리만 내는 것은 그냥 소리이고 ‘음악’이라 함은 거기에 마음에 담아야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욕심이 많으면 음악 소리도 욕심이 많아요. 국악도 마찬가지고요. 양악이나 국악이나 음악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합니다. 최고의 것은 음표안에 없어요. 음악대학이 지향해야 될 것은 갖고 있는 기술과 오랜 기간 훈련된 것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이롭게 하느냐입니다. 흥익인간까지 가네요(웃음). 결국은 남을 돕고 사는 거잖아요. 저는 ‘말러 왜 하세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말러는 그 산이 있으니 올라간다.’고 답하고 ‘브루크너는 사회가 너무 당뇨병에 걸린 것 같아서, 너무 자극적인 것만 찾아서, 그래서 한다’고 답합니다. 나중엔 그냥 브루크너를 많이 들으면 사람이 착해진다고 했어요. 예술은 사람을 착하게 하고 영혼을 정화하는 존재 아닌가요? 사회를 정화하는 것은 예술밖에 없어요. 예술에서도 신의 세계에 가장 가깝게 가는 것이 음악이라고 여러 학자들이 말한 바 있는 만큼 음악대학이 중요하다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9th Symphony Series》를 연습하면서 과학은 못 가는 신의 세계까지 음악은 도달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음악대학이 그만큼 중요한 대학이라는 것을 이 학교에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9th Symphony Series》의 마지막 곡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첫번째 말러 9번은 고별, 베토벤 9번은 형제, 브루크너 9번은 (신께) 감사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주는 말러 3번의 6악장을 했어요. <What Love Tells Me>, 즉 사랑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사랑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어요.”

음악은 적혀진 음표나 단순히 들리는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것, 그래서 사람을 정화시키고 살찌우고 이롭게 하는 것, 그러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일원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질 것. 이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할 것. 서울대학교와 함께 한 지난 30여년의 세월동안 교수님께서 직접 증명하고 실천하신 이 말씀들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마음 속 깊이 새겨져 임헌정 교수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기를 바란다. 많은 작곡가들이 공교롭게도 9번 교향곡을 마지막 교향곡으로 남긴 바 있다. 그 때문인지 ‘9번 교향곡’이라는 말 자체가 마지막이나 이별이 다가왔다는 느낌을 주고는 한다. 하지만 이러한 9번 교향곡들이 시대를 뛰어넘는 명곡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있듯 《9th Symphony Series》와 함께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떠나신다 해도 여전히 임헌정 교수의 발자취는 시대를 뛰어넘어 서울대학교와 계속 함께할 것이다.

인터뷰 · 정리 | 박예림(작곡과 이론전공)

김영선 교수님



김영선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French Horn를 전공한 후, 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Adelphi University(NY, USA) 대학원에서 Studio Art를 수학하였다. Berklee College of Music(MA, USA)에서 Phil Wilson으로부터 Jazz Performance, Tom Plsek으로부터 현대음악 연주기법, Marshall Sealy로부터 Classical French Horn Performance를 사사하였으며 동시에 Music Production and Engineering을 전공하였다. 이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건축음향을 공부,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처럼 예술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배움의 자세를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선 교수님을 지난 2월 17일 만나보았다.

● 새롭게 오시게 된 만큼 아직 교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서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어서 주로 혼자서 곤충, 나무 그리고 구름이 흘러가는 모양을 보며 놀던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호른 소리에 사로잡혀 이 악기 전공을 시작으로 음악과 음향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 신임교수님으로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익숙한 캠퍼스 건물들이 있어 마치 멀리 떠나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부 재학 당시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들께서 반겨 주시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한 학기를 지낸 지금은 학생들의 필요를 잘 살피서 지금의 대학생활이 행복하도록 돕고, 졸업 후 성취하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에서 French Horn을 전공하신 이후 Studio Art, Jazz Performance, 현대음악 연주기법, Music Production and Engineering, 건축음향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셨는데, 악기 외에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부 졸업을 앞 둔 시점에 '아름다운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전문가 평가에서는 좋은 평을 받지 못한다든지, 미술관에 전시된 '무제(Untitled)'라고 적혀 있는 수많은 작품들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 제 뒤편에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해왔고 이제 곧 졸업을 앞 둔 상황에서 뭔가 크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 미술대학원에서 스튜디오 아트(Studio Art) 전공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뉴욕에서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의 초기부터 후기 작품을 한 번에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좋은 작품이란 무엇인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게 되어, 다시 음악전공으로 돌아왔습니다.

건축음향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한국에 돌아와서 레코딩 프로듀서와 엔지니어 활동 중 실내음향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전공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셨고 경력 또한 다양하신데 이처럼 다양한 분야를 공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질문이 이러한 과정을 밟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름다운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한 전공을 지속하는 방법이나 다양한 전공을 경험하는 방법 모두 결국은 배우고 깨닫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무엇이 더 장점이 있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다양한 전공을 경험하는 방법이 큰 배움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 교수님의 유학 생활은 어떠하셨나요? 유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 유학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점, 유학이 크게 도움이 되었던 점 등등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유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대학 2학년 때 부모님이 미국에 구세군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2학년 때부터 혼자 살다 보니 부모님을 뵙고 싶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정형편으로는 유학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으나 이루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변의 많은 도움을 받아 유학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보스톤(Boston)의 록스버리(Roxbury) 지역에서 2년간 거주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인 밀집 지역으로 인근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구세군 교회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며 살았는데 그 모습을 본 주변 아프리카인 이민자들이 자기들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왔으며 TV도 사주고 종종 식사도 초대해 주었습니다. 2년간 이 교회에 참석하면서 춤과 음악, 간증과 말씀을 4시간 이상 몰입하며 드리는 예배를 매주 경험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습니다.

학업면에서 특별히 도움이 되었던 점은 아델파이(Adelphi) 미술대학원에 입학 할 당시 미술작품 포트폴리오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음악 전공생으로서 경험한 부분을 인정해 주어 미대입학을 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버클리 음대(Berklee College of Music)에서 클래식과 재즈, 뮤직 프로덕션과 엔지니어링을 동시에 공부 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국내 여건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여러 음악분야를 동시에 공부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연구 분야는 무대음향관련 연구, 음향 전시작품, 레코딩 프로듀싱 및 엔지니어링, 건축음향 및 전기음향 설계로 나뉩니다. 무대음향관련 연구는 연주자 입장에서 무대음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제가 연주전공을 했던 배경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음향 전시작품은 음향작품을 전시형태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들리는 여러 소리들을 잘 관찰해보면 그 안에 내재된 음악적 요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레코딩 프로듀싱 및 엔지니어링 분야는 독일에서는 톤마이스터로 불리는 분야입니다. 음악 제작에 있어 음악적 완성





도를 높이기 위한 음악 프로듀싱과 이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녹음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들과 녹음하는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녹음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후반 작업 시 음악적으로 편집하고 믹싱 하는 등 음악 제작에 필요한 여러 분야를 섭렵해야 합니다.

건축음향 및 전기음향 설계는 공연장, 종교시설, 레코딩 스튜디오 뿐만 아니라 교실, 카페 등에 요구되는 음향 조건을 갖추도록 컨설팅하거나 설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음향은 건축공학의 전공분야이고 전기음향은 전기공학의 전공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나 다목적 공연장과 같이 전기음향과 건축음향이 동시에 사용되는 공간이 많습니다. 건축음향은 어쿠스틱 설계를 위한 축소모형, 컴퓨터 시뮬레이션, 현장측정, 청감실험 등을 통해 물리요소와 심리요소를 연구하는 방식이며, 전기음향은 마이크, 믹싱콘솔, 앰프, 스피커 등의 시스템 구성, 스피커 배치, 컴퓨터 시뮬레이션, 현장측정, 청감실험 등을 통해 물리요소와 심리요소를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나 주제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연구로는 연주자 입장에서 자신이 연주한 연주음이 어떻게 공간을 다르게 인지하도록 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즉 클라리넷과 같이 악기가 양 귀의 가운데에 위치한 경우와 바이올린과 같이 주로 한쪽 귀에 가깝게 위치한 경우에 따라 자신이 연주하고 있는 공연장의 음향상태 인지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연주자들의 공간음향 인지 방식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봅니다.

이와 함께 음악녹음을 위한 연구와 음향작품 제작 등은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 **교수님께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실 때 어떤 학생이셨나요? 혹은 어떻게 대학 생활을 보내셨나요?**

서울대학교 재학 당시에 개인레슨 이외에 다른 수업은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나도 뭔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기독교 음악선교 단체에 가입하여 매진하다 보니 학교 수업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당시 이강숙 교수님께서 수업하시던 '음악미학' 수업의 경우는 F를 연속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참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매일같이 사유(思惟)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버클리 음대 유학 시절은 공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학금을 못 받으면 공부를 마칠 수 없었기에 더욱 매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26살에 큰 딸아이가 생긴 이후에는 뭐든지 당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 밖에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 중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각자에게 자신만의 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임과 동시에 그간 내가 살아온 모양새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이 결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금이 '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로는 지금의 그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갈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데려갈지는 선택사항 즉 옵션(Option)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How)는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진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나를 발견하는 여행, 나를 알아가는 여행을 계획하시면 진로는 자연스럽게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 **학생들에게 어떤 교수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함께 연구하고 싶은 동료 연구자, 함께 작품하고 싶은 동료 예술가, 함께 음악을 만들고 싶은 동료 프로듀서가 되고 싶습니다.

- **교수님만의 교육관이나 교수로서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식은 끊임없이 쌓아가되 실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고자 하는 친절함이 있다면 좋은 교수가 아닐까요?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 자신이 없네요.

- **학생들에게 기대하거나 교수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는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신이 작품이면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작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 다시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끄럽지만 더불어 인생길 가보자는 의미에서 이 인터뷰에 글을 적습니다. 맘에 들지 않는 글은 너그럽이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 정리 | 박예림(작곡과 이론전공)

신임교수 인터뷰

린보페이(PerMagnus Lindborg) 교수님



린보페이 교수님은 compositions과 installations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더해 electroacoustic music, multimedia, computer music, sonification, auditory perception 분야의 전문가이시며 Soundislands Festival(2013-17)을 설립한 바 있다. 아티스트이자 연구자, 교수로서 다방면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린보페이 교수님을 지난 2월 22일 만나보았다.

- **서울대학교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떠셨나요?**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 **어떻게 서울대학교로 오시게 되었나요?**

서울대학교 음악 대학은 아시아 최고 대학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몇몇의 작곡 교수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파리에서 최교수님을 만났었죠. 여기에 오고 나서 보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들의 역량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습실 복도를 걸을 때면 소리들의 매혹적인 불협화음을 들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이 어린 학생들의 재능과 열정, 엄청난 양의 노력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음악성은 SNU오케스트라의 베토벤 9번 교향곡 연주처럼 무대에 선 학생들을 볼 때도 분명히 드러나지만, 저는 여러 면에서 그보단 연습실 복도를 거닐 때 느껴지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 사운드스케이프는 작곡가와 교육자로서 저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줬습니다.

사진 출처 및 자세한 교수님 프로필은 <http://permagnus.org/ped/snu/2019/01/03/permagnus-lindborg-phd/>을 참고하세요

- **지난 2018년 2학기부터 서울대학교에 계셨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학기는 어떠셨나요?**

굉장히 다사다난했습니다. 동료들로부터 매우 따뜻한 환영을 받아, 여러모로 낯선 환경인데도 마치 집처럼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 **서울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으셨나요?**

네 몇몇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웃음) 김영선 교수님과 함께 했던 "9 Beet Stretch"가 그 중하나입니다. 저는 항상 Lief Inge의 작품을 발표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음악대학의 로비에서 SNU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작품을 연주하기 바로 며칠 전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진 출처 및 자세한 작품 설명은 <http://permagnus.org/ped/snu/2019/01/02/asian-premiere-of-9-beet-stretch/>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 첫 번째 학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의심할 여지없이 USA에서 온 교류학생인 민 네리(Min Neri)입니다. 그녀는 제 수업을 들으며 전자음향 작곡 기술을 공부하였고 "9 Beet Streich" 설치에 어시스턴트로 참여하였으며, 제가 11월에 홍콩에서 대규모 콘서트 설치 작품을 할 때 역시 어시스턴트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http://permagnus.org/ped/snu/2019/01/02/hers-min/>를 참고하세요.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이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녀가 미국에 살면서 얻은 것이겠지만, 저는 제 클래스의 모든 학생들이 많은 талан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기가 끝나갈 때쯤, 이들 모두가 OPENHOUSE에 그들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활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길 바랍니다.

OPENHOUSE와 관련된 내용은 <http://permagnus.org/ped/snu/2019/01/02/openhouse-2018/>를 참고하세요.

● 교수님께서 어떻게 전자음향작곡과 멀티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와 트럼본을 배웠고, 나중에 대학에서 수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만두고 다시 연주로 돌아왔고, 궁극적으로는 작곡이야말로 진정한 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를 연습하는 것과 디버깅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악을 통해서야말로 아름다움, 고통, 욕망, 행복을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음악에서는 수학에 대한 제 열정과 음악에 대한 열망을 결합시킬 수 있었죠. 지금 저는 인터랙티브 뮤직(interactive music), 제너레이티브 인스탈레이션(generative installations), 컴퓨터 음악(music computing)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커리어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나 성취를 뽑는다면 무엇을 뽑고 싶으세요?

젊은 작곡가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2002년에 오케스트라곡인 "Khreia"를 통해 SSO Nordic Composer Competition에서 우승했던 것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제가 지난 10년 동안 작업해왔던 작곡적, 구조적 개념의 핵심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유사 패턴의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것, 두 번째는 음색과 오케스트레이션 리소스 사이의 균형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수상이었습니다.

자세한 작품 설명은 <http://permagnus.org/pm/artwork/acousticorchestra/khreia/index.html>를 참고하세요.

● 교수님께서 또한 2015년에 소리와 상호작용에 관한 주제로 <Soundislands Festival & Si15 Symposium>를 주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설립자이자 주최자로서 얻은 가장 큰 성취는 국내외 6개 기관의 지원과 지지를 통해 우리 기관의 후원금을 4배로 늘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Soundislands Festival 2015에서 다양한 공개 행사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료지 이케다(Rioji Ikeda)가 출연한 콘서트에서부터 아카데미 컨퍼런스, 대학원생·어린이·일반 관객들을 위한 워크숍까지 굉장히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 지난 학기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9 Beet Stretch"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이 작품은 노르웨이 사상이 레이프 잉게(Lief Inge)의 작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9 Beet Stretch는 루트비히 반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음고의 왜곡 없이 24시간으로 늘려놓은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호처리는 Oslo의 NoTAM에서 이루어졌으며 2004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작했습니다. 김영선 교수님과 함께 아시아 시사회를 기획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품이 여러 면에서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술적인 관점, (특히 여러 개의 기존 노래를 혼합하여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기술인 Plunderphonics와 관련된) 예술적인 관점, 그리고 순전히 쾌락 주의적인 수준의 청취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연구 주제가 있을까요?

저는 데이터의 소닉화(sonification)을 통해 몰입적인(immersive) 소리 환경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VR+EAM, 즉 가상 현실과 전자음향 음악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교수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 젊은 인재들이 컴퓨터 음악, 전자음향작곡,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연주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돕고, 자신의 악기의 한계를 시험하고, 이전에는 없었던 상상의 세계로 가기 위한 새로운 도구나 접근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싶습니다. 아티스트이자 연구자로서, 저는 좋은 창조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며 제 학생들이 자신의 기술의 한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도구와 접근법을 개발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 교수님의 교육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자로서 저의 목표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다방면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중요시 여기는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더 깊은 수준의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자기 인식과 자기 관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론적 개념과



기술적인 노하우에 대한 굳건한 기반을 가진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활동 및 음악의 연주와 인스텔레이션에 관한 도전들을 도우면서 이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작곡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면 학생들은 궁극적으로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강의 내용이나 목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SNU에서 3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자음향작곡과 멀티미디어에 관한 창조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대학원 프로그램 개발을 도우며, "Mixed Music"이라는 새로운 강의를 통해 연주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김영선 교수님과 함께 이번 학기에 이 과정을 시작할 것이며, 연주자들(악기연주자들과 성악가들)이 전자기술과 컴퓨터와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로 솔로 악기와 '테이프'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30년간 쓰여진 수많은 흥미로운 작품들이 있지만, 학생들이 대학에서 이러한 음악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는 적었습니다. 이 강의는 학생들이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새롭고 아름다운 음악을 탐구하고, 그들의 악기를 위한 믹스드 뮤직 레퍼토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작곡, 이론, 연주 전공을 서로 더 가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서울대학교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어떤 음악을 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배워가고 싶은게 너무 많아요. 제 사무실은 220-404이니, 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봐요!

인터뷰 · 정리 | 박예림(작곡과 이론전공)

학생 인터뷰

키지아나 음대 교류학생 인터뷰



지난 3월1일 키지아나 음대 교류학생으로 다녀온 기악과 김성원(18), 성악과 우준범(15), 기악과 강보현(13)을 만났다.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다양한 음악가들과 교류하며 흔하게 접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온 만큼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보따리를 잔뜩 풀어놓았다.

● 안녕하세요! 먼저 어떻게 키지아나 음대에 다녀오게 되었는지 들려주세요.

김성원 모집요강이 떠서 신청을 했어요. 과공지에 올라와서 기회가 닿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우준범 저 역시 공지를 보고 학교에서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하니깐 가보고 싶기도 했고, 거기서 노래를 배워보고 싶어서 지원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강보현 공지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학교는 어딘지도 잘 몰랐지만 이탈리아를 가보고 싶어서 지원하였습니다.

● 준비과정에서는 어떤 걸 준비해 가셨나요?

김성원 지원을 할 때 실기오디션을 본다거나 그런 것이 없었고, 수상경력 같은 것을 써서 내라고 해서 딱히 준비과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준 과제곡을 연습하라고 해서 과제곡만 연습하였습니다.

우준범 레퍼토리를 정해주고 어디 안에서 한 곡, 어디 안에서 몇 곡 씩, 오페라 스코어 중에 어디 부분을 이 시대 것, 저 시대 것을 공부해오면 좋다고 상세히 안내 받아서 그런 것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강보현 시대별로 준비하면 된다고 해서 마침 졸업연주를 준비하던 때라 그 곡 대로 준비해서 가고, 학교 다닐 때 성적이만 괜찮으면 된다고 해서 넣었는데 되어서 운이 좋게 다녀왔습니다.

- **키지아나 음대는 어떤 곳인가요? 첫인상, 가서 느낀 분위기, 커리큘럼, 학생들, 교수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김성원 아카데미였어서 키지아나 초청 교수진분들이 오셔서 좋은 선생님들께 좋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고 건물들이 옛날 건물들이라 조용하고 새로운 느낌이 들더라구요.

강보현 학교 분위기는 많이 달랐습니다. 학교 카페 같은 곳에서도 술을 팔고 해서 저는 카페에서 연주했는데, 교수님과 같이 술을 마시며 연주를 보기도 하고 분위기가 많이 개방적이고 많이 달랐습니다.

우준범 아카데미이다보니 단발적인 코스로 진행이 됐었는데 한국에서 음악 아카데미를 해본적이 없어서 굉장히 새로웠고 매일매일 레슨을 받고 매일 음악적인 얘기를 나누고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 **키지아나 음대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했나요?**

김성원 비올라 같은 경우 준비해오라고 했던 레퍼토리를 전악장을 봤습니다. 현대곡을 봤는데, 제가 준비해간 것 말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훑자고 하셔서 새로 악보를 보고 그 곡에 대해 새로 배우는 일정을 소화했고 선생님이 연주하시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준범 20일정도 기간 동안 연주가 3번이 있는 코스였는데 그 연주를 위해서 거기 강사로 오신 교수님과 같이 제가 준비해간 곡들에 대해 레슨을 받고 많이 배우고, 세 번의 연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코스였던 것 같아요. 세계에서 온 몇 명의 학생들이 이 교수님한테 배워서 어느정도의 성과를 이뤘음을 보여주는데, 솔로로 아리아를 불러서 하기도 하고, 갈라 콘서트를 서너개 팀으로 만들어서 콘서트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팀으로 하는 작업들을 거기 계신 선생님들께 코치도 받고, 여러 나라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강보현 클라리넷은 미국에서 오신 현대적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였어서 한국에서는 배워본 적 없는 음악을 하시는 분이다보니 제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여러 나라 친구들이 많이 와서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 **일정을 소화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김성원 딱히 없었어요.(웃음)

우준범 저는 유학을 아직 가보진 않았으니까 유학을 가게 된다면 이렇게 외롭겠구나 싶었어요. 한국인들이 같이 가지 않고 다 따로따로 일정이 있었거든요.

강보현 저도 친구가 없어서 혼자 이어폰 끼고 다니고 그랬어요.(웃음) 근데 거기서 만난 반주자분이 나이 많은 학생 분이었는데 아직도 연락을 합니다. 그 분은 재즈 피아노 하시는 분인데 제 반주를 해주셔서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한국가면 만나자고 그랬어요. 저도 좋은 인상으로 남아서 아직도 안부를 묻고 지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성원 제가 저희 셋 중 제일 마지막에 갔는데 보현 오빠가 많이 알려주셔서 저는 생각보다 편하게 갔다 온 것 같아요.

- **서울대학교와 키지아나 음대를 비교했을 때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김성원 이거는 모든 외국 대학에서 그럴 것 같은데 한국이랑은 좀 다르게 스스로 배우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스스로 질문한다거나, 바이올린 전공인 어떤 분께서 와서 비올라 수업을 들으셨는데, 내 전공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게 되게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우준범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되게 친근하고 친구같이 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말도 잘 안 통했는데, 커리큘럼 시간표가 9시에 만나서 청강도 하고 저녁 6시넘어서까지 붙어있었던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돼서 끝나면 저녁도 먹고 내일 아침에 또 보자고 하면서 친근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보다는 사제지간의 격이랄까 거리가 조금 더 좁은 것 같았어요. 고민이 생기면 교수님께 바로 말하고 싶은 분위기, 편안하게 뭐든지 털어놓을 수 있고 좀 더 자유롭게 질문하고 서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보현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서는 너무 쫓기듯이 살다보니 개인이 생각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많이 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음악이 어떤 것인지 찾아가기 어려운데, 거기서는 굳이 클래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쫓기듯이 4년이 흘러가버리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여러가지 할 것도 많아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그 친구들보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한 마디만해주세요!**

김성원 외국으로 처음 아카데미 같은 걸 가봤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다보니 좀 긴장하기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두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다른데도 부딪혀보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준범 잠깐 동안이라도 이탈리아에서 음악 학교에 가서 아카데미를 하고 오니까 이탈리아에서 또 가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굳이 그 학교는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도 이탈리아 분이시고. 그곳만의 음악적인 느낌에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젖어들었던 것 같고, 그것에 매력을 느껴서 다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보현 처음에 공고가 떴을 때 많은 관악애들은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혼자가야했지만 다음에도 또 비슷한 기회가 있으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꼭 이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고 여러모로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인터뷰 · 정리 | 박예림(작곡과 이론전공)

축하합니다

성악과				
김지유	석14	소프라노	제44회 중앙음악콩쿠르	여자성악부문 1위 없는 3위
			제10회 세일한국가곡콩쿠르	여자성악부문 1위
			제4회 한국성악가협회 국제콩쿠르	2위
			제4회 경상북도 파파로티 성악콩쿠르	파파로티상
조한나	석17	소프라노	대구 성악 콩쿠르	우수상
김요한	18	테너	오사카국제콩쿠르	2위
강수연	16	소프라노	2018 한국성악콩쿠르	장려
이선우	16	소프라노	2018 한국성악콩쿠르	1위
김 건	16	바리톤	2018 한국성악콩쿠르	3위

기악과				
하병찬	18	피아노	Korea-Asia Piano Open Competition	1위
장소연	석18	피아노	Korea-Asia Piano Open Competition	2위
김승희	18	피아노	Korea-Asia Piano Open Competition	3위
김정진	16	피아노	Korea-Asia Piano Open Competition	4위
박예람	15	피아노	Classic Pure Vienna Competition	2위
김정진	16	피아노	2018 Hong Kong-Asia piano open competition	1위
박선민	17	피아노	제2회 월간 뮤직리뷰 전국음악콩쿠르	1위
김승희	18	피아노	Szymanowski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3위
김민철	14	더블베이스	제58회 동아음악콩쿠르	1위
신경식	16	비올라	제58회 동아음악콩쿠르	1위
황윤재	14	테너트롬본	제58회 동아음악콩쿠르	2위

국악과				
유하늘	17	가야금	제6회 의정부국제가야금대회	대학부 장려상
김정민	17	가야금	제6회 의정부국제가야금대회	대학부 장려상
김지호	13	가야금	2018 젊은국악오디션 단장	대상
박지현	14			
오지현	13			
방초롱	석11	대금	2018 KBS 국악대상	단체연주상
이근재	13	피리	제17회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 대제전	일반부 최우수상
이재준	15	작곡	2018 국악대학축제 작곡발표회	우수작 당선
송현이	석15	이론	제7회 국립국악원 학술상	우수상
정난희	05	가야금	제42회 전국 탄금대 가야금대회	대통령상
박종찬	15	가야금	제42회 전국 탄금대 가야금대회	장관상
정유경	18	가야금	제42회 전국 탄금대 가야금대회	우수상

감사합니다

출연자명	납입일자	지원단위	기금용도	기금명	납입금액
김경아	2018-03-16	음악대학	학술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100,000
	2018-04-17	음악대학	학술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100,000
	2018-05-17	음악대학	학술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200,000
	2018-06-15	음악대학	학술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200,000
김규동	2018-03-16	작곡과	학술		50,000
	2018-04-17	작곡과	학술		50,000
	2018-05-17	작곡과	학술		50,000
	2018-06-15	작곡과	학술		50,000
김우진	2018-03-14	국악과	학술	이론전공장학금	100,000
누리모	2018-06-01	음악대학	위임		1,000,000
박미혜	2018-03-13	성악과	학술	태리장학금	500,000
	2018-04-11	성악과	학술	태리장학금	500,000
	2018-05-11	성악과	학술	태리장학금	500,000
	2018-06-12	성악과	학술	태리장학금	500,000
백승희	2018-06-11	국악과	학술	가야금 발전 장학금	150,000
송경희	2018-03-26	국악과	학술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100,000
	2018-03-28	음악대학	학술	장학	100,000
	2018-04-25	국악과	학술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100,000
	2018-04-30	음악대학	학술	장학	100,000
	2018-05-25	국악과	학술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100,000
	2018-05-29	음악대학	학술	장학	100,000
	2018-06-25	국악과	학술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100,000
	2018-06-28	음악대학	학술	장학	100,000
안인희	2018-06-25	음악대학	학술	음악대학 WIN 장학기금	10,000,000
양경숙	2018-03-16	국악과	학술	해금전공장학금	300,000
	2018-04-17	국악과	학술	해금전공장학금	300,000
	2018-05-17	국악과	학술	해금전공장학금	300,000
	2018-06-15	국악과	학술	해금전공장학금	300,000
이돈용	2018-03-16	작곡과	위임		100,000
	2018-04-17	작곡과	위임		100,000
	2018-05-17	작곡과	위임		100,000
	2018-06-15	작곡과	위임		100,000
이선숙	2018-07-04	동양음악연구소	위임		300,000
이신우	2018-03-16	작곡과	위임		50,000
	2018-04-17	작곡과	위임		50,000
	2018-05-17	작곡과	위임		50,000
	2018-06-15	작곡과	위임		50,000
		작곡과	장학	장학	10,000,000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출연자명	납입일자	지원단위	기금용도	기금명	납입금액
이지언	2018-06-12	국악과	학술	가야금 발전 장학금	100,000
최경한	2018-03-16	기악과	시설물	관악전공기금	100,000
	2018-04-17	기악과	시설물	관악전공기금	100,000
	2018-05-17	기악과	시설물	관악전공기금	100,000
	2018-06-15	기악과	시설물	관악전공기금	100,000
최희연	2018-05-27	기악과	학술	피아노전공기금	2,000,000
허윤정	2018-03-27	국악과	위임		200,000
	2018-04-26	국악과	위임		200,000
	2018-05-28	국악과	위임		200,000
	2018-06-26	국악과	위임		200,000
후원자 00664	2018-03-23	국악과	학술	가야금 발전 장학금	2,000,000
	2018-03-14	동양음악연구소	위임		1,000,000
(주)상지 인터내셔널			학술	음악대학 전자음악 발전기금	10,000,000
김세경			장학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3,000,000
박수경			장학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20,000
이예진			장학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20,000
인송 문화재단			장학	장학	12,000,000
임혜정			장학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20,000
재단법인 세이아이윤형 문화재단			학술	재단법인 세이아이윤형문화재단 발전 기금	10,000,000
정겨운			장학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20,000
정재교			학술	음악대학 전자음악 발전기금	30,000,000
지혜인			장학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20,000
최재윤			장학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20,000
황보영			장학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20,000
이영희			장학	장학	3,916,000
마드리 실내악단					100,000,000
김민성				악기 기부	비올라1중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 및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 이메일, 문자로 전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1. 기본정보

기부 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음

성명 [회사(단체)명/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양력 <input type="checkbox"/> 음력 년 월 일
우편수령주소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주소: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자택번호: 직장번호:	직장정보 직장명: 부서: 직위:
<input type="checkbox"/> 등문 학과(특별과정): 입학년도(기수):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학생성명: 학부(과): 입학년도: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부서: 직위:

2. 약정정보

희망사용처	<input type="checkbox"/> 대학 중점사업에 사용되기를 희망 (대학에 위임) <input type="checkbox"/> 단과대학(원), 학과, 연구소 등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위임 <input type="checkbox"/> 학술 <input type="checkbox"/> 장학 <input type="checkbox"/> 연구 <input type="checkbox"/> 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약정금액	<input type="checkbox"/> 정액후원 일금 W 원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분할납 년 월 ~ 년 월 (회 분납)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매월 W 원씩 년 월부터 정기자동이체 ※기부금 원금을 보존하여 발생하는 이자(과실금)로 지원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네 (원금보존)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원금사용)
기금명칭	※약정액이 일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기부동기 (납기고른 말)	

3. 납부방법 (택 1)

<input type="checkbox"/> 무통장 입금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input type="checkbox"/> 농협 079-17-000136 <input type="checkbox"/> 신한 100-014-328209 <input type="checkbox"/> 우리 1006-601-280134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카드명: 계좌번호: 유효기간: 년 월 결제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기타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급여공제 <input type="checkbox"/> 지로입금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지로번호 7514340, www.giro.or.kr)
--	---	---	---

4.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고지사항 고시

필수정보	회원 확인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성명, 필수연락처, 필수주소, 약정금액, 납부방식(일시납, 분할납), 기금용도 지정, 기부금 원금 보존 여부, 무통장입금, 자동이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신용카드(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지로입금, 교직원 급여공제	정보 수집 및 제공: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선택정보	회원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 등문(학부(과), 입학년도), 학부모(학생성명, 학생학부(과), 학생 입학년도), 교직원(부서), 기타, 우편물 수령주소(자택, 직장), 생년월일, 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직장명, 부서, 직위	정보 수집 및 제공: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기부영수증 발급 및 예우목적)	정보 수집 및 제공: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정보제공	기부금 납부 및 예우·모금통계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별도 기부자 예우 및 모금 통계	정보 제공 및 공개: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근거 : [필수정보, 선택정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 조, [고유식별정보] 소득세법 제 160 조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3 조 제 1 항, 제 208 조의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8 조, 법인세법 제 112 조의 2 등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준수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Tel: 02-880-8004, 02-871-8146 Fax: 02-872-4149
문자: 1666-2930 *작성한 참여신청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문자로 보내주세요
E-mail: snuf@snu.ac.kr Homepage: www.snu.or.kr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절
취
선

매일 만원이면 선한 인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매일 30만원 X 저소득층 학생 약 850명에게 지급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1666-2930

www.snu.or.kr 에서 내려받은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으로 찍어 보내주시거나 참여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02-880-8004)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MUSIC

발행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전상직
기획 및 편집 위원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학장 오희숙
기획홍보실	송민섭 조교 박예림 작곡과 이론전공 장예은 국악과 가야금전공 한승희 음악과 석사과정
디자인 및 인쇄	(주)꿈인 디자인&출판
발행일자	2019. 04. 02.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